

# 무주, 독립유공자 희생 새긴다

## 3.1 운동 100주년 기념 후손가정에 명패 달아주는 사업 진행

무주군이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독립유공자의 집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이하 명패 달아드리기)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자긍심 제고를 위해 국가보훈처와 힘을 합쳐 올해 처음 시행하는 것으로, 26일 무풍면 묘암마을(독립유공자 이종성의 손자 이정우 씨 가정)에서 열린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김석기 전

북동부보훈지청장 등 10여 명이 함께 해 의미를 더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명패달기기를 통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을 되새기고 그 후손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리게 돼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국가유공자를 지원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군은 무풍면 금평리에 무풍면 출신 의병장 이종성, 황대연, 이장춘

의 공적과 넋을 기리는 순국의병장 주지사를 조성해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며 호국안보의식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다. 독립유공자 이종성(1990년 건국훈장 애국장)은 1871년 전북 무주군 무풍면에서 출생해 1908년 덕유산에 근거지로 항쟁을 벌이던 의병장 문태서와 함께 충북 영동과 청산, 육천 등지에서 활약을 하다 1910년 4월 무주군 무풍면 흑석산 계곡에서 전사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고원 스마트팜 유리온실 준공식이 26일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일원 현지에서 열렸다.

## 진안군, 최첨단 스마트팜 유리온실 '문 활짝'

### 연간 약 640톤 토마토 생산 · 11억원 조수익 예상

진안고원 스마트팜 유리온실 준공식이 26일 진안군 동향면 신송리 일원 현지에서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안호영 국회의원, 김송일 전북도 행정부지사, 최성용 진안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해 신갑수 군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원농업영농조합법인(대표 성태근)이 추진한 진안고원 스마트팜 유리온실은 1.6ha 면적에 양액재배시설을 비롯한 복합환경 제어시스템을

갖춘 스마트팜으로 총 6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연간 약 640톤의 토마토를 생산, 약 11억원의 조수익이 예상된다.

성태근 대표는 "토마토 선진 재배 기술과 노하우로 최상품의 토마토를 생산해 전국의 대표 토마토 농장으로 만들겠다"며 "최첨단 유리 온실 신축으로 신규 농업인들도 다양한 농작물을 재배하여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호영 국회의원은 "스마트팜 온실 관련 예산 확대와 안정적 관료 확보 등 제기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농업인과 청년들이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성용 권한 대행은 "이제 농업은 환경에 지배받는 농업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팜 기술을 통해 환경을 지배하는 스마트 영농으로 변하고 있다"며 "우리군도 스마트팜 온실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금연구역의 지도·점검

장수군은 26일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금연환경조성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공중이용시설 및 고시지역에 대한 금연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점검은 전담인력 2개반(4명)이 편성돼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관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병·의원, 음식점, 놀이시설, PC방 등 관내 금연구역 150개소에 대해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및 상태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행위 감시 및 계도, 금연 홍보 활동을 펼쳤다. /장수=고관호 기자

## '소통·행정 리더십' 실력 인정

### 장수군, 전국 지자체 평가 군 단위 10위 달성

장수군이 전국 지자체 평가에서 10대 군에 올랐다.

26일 장수군에 따르면 한국일보와 한국지방자치회회가 행정안전부 후원으로 진행한 '2019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농어촌 기초 자치단체 82개 군 중 종합 10위를 차지했다.

장수군은 지난 해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렀다가 불과 1년 만에 10위로 도약하며 달라진 행정 서비스 역량을 과시했다.

이번 평가는 행정 서비스, 재정 역량, 주민평가 등으로 이뤄졌다.

군은 사회복지, 일자리경제, 문화관광, 안전, 교육 분야를 평가하는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전국 6위, 전북 1위를 차지했으며 군주력 시책 사업들이 높은 점수를 얻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군은 예산 3000억 시대를 열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위해 '이·미움권' 지원, '찾아가는 휴바우처', '노인 일자리 창출', '장수군치매센터', '군민 건강을 위한 예방접종 단계적 서비스 지원',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 등을 펼쳤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 최초 '일자리 JOB센터'를 개소해 구인·구직자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률제고를 위해 동행 면접, 채용행사 진행, 취업프로그램운영, 일자리 협력망구축 등을 통해 일자리 관련 허브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수가야 발굴 및 종합 정비사업', '장수누리파크 관광활성화', '신혼부부 결혼 축하금 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장학금 지원', '장수 미래발전 포럼', '면단위 LPG배관망 구축 사업', '농곡 소하천 정비'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육성체제로 발돋움한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의 성공과 높은 주민 참여도, 지역경제 기여도, 장영수 군수의 '현장 소통 행정' 서비스 등도 전국 10위 평가의 기반이 됐다.

장영수 군수는 "지금 평가에 안주하지 않고 지금보다 더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군민들이 살기 좋은 장수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지역 매아리

### 진안군,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

진안군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위해 자활근로(내일희망일자리) 신규 참여자를 3월 말까지 집중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자활근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다.

모집은 군과 지역자활센터가 합동으로 읍·면별 직접 방문하여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면접을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올해 진안군 자활사업의 중점 목표는 청년일자리 확대, 근로능력 있는 청년들을 집중 모집하고, 시범사업단(청년포차 및 푸점카페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범사업단의 성과가 인정되면 정식사업단을 발족하여 담양이 카페와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명기 사회복지과장은 "앞으로 2022년까지 자활사업 1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 내 저소득 주민들의 고용 창출과 함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밝혔다.

자활근로 참여자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은 진안군청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430-2546)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진안군,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진안군은 26일 2019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부군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제1회 추경예산 관련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들로 △마이산 관광단지 유원시설용지 토지매입, △마이산토탈관광체험센터 건립(변경), △투파선도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매입(변경), △진안고원시정 청년몰 조성(변경),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등 총5건이 상정되었다.

안전 관련부서 팀장이 참석하여 위원들과의 질의응답과 의견교환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 안전에 대하여 처리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는 기구로 위원장(부군수 최성용)을 비롯하여 당연직 공무원 4명과 민간위원 법무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재정경험 전직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되었다. 진안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뿐만 아니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용도변경 및 용도폐지 등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군민들에게 투명하고 공정한 재산관리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다. (문의 ☎ 재무과 재산관리팀 063-430-2289) /진안=우태만 기자

## '스마트폰 사용 어렵지 않아요'

### 무주군,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 진행

무주군은 27일과 28일 양일 간 무주읍 서면마을을 시작으로 8개 마을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시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스마트폰 기초 활용법(전화, 문자, 카메라 등 사용)을 주제로 실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농·식품부 소통연구소 프로젝트(어르신 스마트폰 교육)와도 연계·진행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김경복 정보통신 팀장은 "스마트폰 기능이 빠르게 다변화하면서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돼 진행을 하게 됐다"라며 "어르신 인구가 많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등 어르신들의 접근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곳을 찾아가 교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어르신들의 교육을 맡은 무주군청 자치행정과 정보통신팀 김진만 주무관은 "어르신들이 이번 교육을 계기로 큰 어려움 없이 떨어져 있는 지식, 손주들과 소통하고 사진 촬영이나 문자 전송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봐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군은 먼저 신청을 받은 8개 마을에서 어르신 대상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실시하며 추후에도 신청을 받아 진행할 계획이다. (교육관련 문의 및 신청 320-2236) /무주=전문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www.jjmaeil.com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